

원불교 CI(원불교 이미지)제안의 일

문화사회부 김보선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원은 돌고 도는 것이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족 원한 것이요, 일체가 공(空)한 것이며, 한 기운으로 뭉쳐 있는 것이다.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이하 소태산 대종사)는 큰 깨달음을 얻은 후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 밝히고 그 이미지를 원으로 직접 표현하였다. 또한 이를 진리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으로 모시고 이에 따른 교리강령과 규정을 정립하였다.

원불교 교리에 초점을 맞춘 원 상징은 만고(萬古) 불변의 진리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의미 가운데 특히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와 ‘인과보응 되는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일원상’을 순수하며 ‘공(空)’의 의미로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기(氣)와 기(氣)의 소통에 적합함을 밝힌다.

또한 원상은 인과보응의 순환적 흐름과 생사의 윤회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임을 증명고, 원상이 원불교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요소이며 교조의 개교정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체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상을 원불교 관련 기관과 교화현장에서는 각기 여러 가지 해석과 표현으로 다양한 원을 사용하여왔음을 조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원불교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원불교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원상에 대한 제해석(諸解釋)과 표현의 법제화(法制化)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상의 법제화를 통하여 원불교의 모든 기관과 교화시설, 기타 다양한 곳에서 일관된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된 교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 의한 결과는 원불교의 정체성을 이미지로 나타내고 적절한 홍보와 시설을 통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재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원불교인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충만한 종교심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法身佛一圓相)’을 ‘원(圓)’ 형태로 규정을 하여 형태상 법제화하며,

원불교 이미지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C.I 개발 및 전개방식을 도입하여 원불교의 재인식의 의미로

첫째, 원불교의 사상(원불교의 진리 · 신앙 · 수행)과 일원상의 형성과정을 정리하며, 상징 사용사례와 현황을 정리한다.

둘째, 원 상징의 재해석과 자료 수집을 도형적인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분류 정리한

후 종교적(기독교·불교·도교·힌두교·이슬람교) 관점으로 정립한다.

셋째, community의 개념을 종교의 community 형성에 적용하여 원불교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community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분석 정리하며 이미지 구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들을 유추해본다.

넷째, 위의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시스템과 응용항목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시스템과 응용항목을 개발 시 원불교 담당 행정부처의 제언과 3차 설문을 실시하며, 단국대학교 예술조형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참여로 진행하였다.

심볼마크 개발 시 기존의 신앙의 대상의 재현이 아닌 다양성을 내포하는 새로운 심볼마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종교의 폐쇄성과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 신념으로 처음 시도하는 원불교 community identity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새로운 심볼마크를 개발하는 자유 연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전제하고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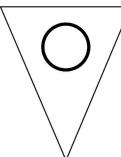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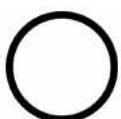
그로 인하여 조형성이거나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갖춘 심볼마크는 자유 연구가 아닌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종교의식공간에 모셔진 '법신불 일원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원상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며, 원불교의 교리 해석을 통하여 형태적 법제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로고타입의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정서와 동양종교의 정서를 담는 글씨로 한국적 전통성을 전달하는 로고타입으로 캘리그래픽 형태를 우선으로 하여 설문과 제언을 통하여, 심볼마크와 함께 사용할 로고타입을 개발하여 몇 가지 항목에 적용하여 원불교 이미지 구축에 적합한 community identity가 되도록 연구하였다.

II. 원불교 현황

<표 1> 원불교의 일원상 형성 과정

연도	제 목	내용	이미지
원기 원년 1916. 4. 28.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일성(大覺一聲)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 하여 한 두 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一, 두렷한 : 圓, 기틀 : 相	근거없음
원기 3년 1918. 10.	교단 최초 교당인 '구간도설' 상량문	'사원기일월(梭圓機日月) 직춘추법려(織春秋法呂)'라 씀 → 일원상을 해와 달로 비유	근거없음
원기 4년 1919. 3.	정산 종사의 식구	일원(一圓)을 운으로 시를 지으라 하니 '만유 화위일(萬有化爲一) 천지시대원(天地是大圓)'이라 지음. (만유는 일로써 되고 천지는 크게 둑근 것)	근거없음
원기 4년 1919. 8.	김제 금산사에서 처음으로 일원상 그림	소태산 대종사가 휴양차 거처하던 김제 금 산사 별채 문미(門楣)에 처음으로 일원상을 그려 새 종지(宗旨)의 구상을 표현함	

원기 5년 1920. 3.	교리 강령 초안	불교제도의 혁신을 언급하는 가운데 신앙의 대상을 '불성(佛性) 일원상'으로 언급 함. 일원상을 불성으로 표현한 것은 일원상의 진리는 천지 만물 허공 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	
원기 8년 1923. 4.	변산 휴양 시	일원상을 '대원지도(大圓之圖)'라 하여 제자들에게 일원상의 진리를 밝힘	근거없음
원기 20년 1935. 4.	'조선불교혁신론' 저술	'일원상 조성법', '등상불 신앙을 불성일원상 신앙'으로 라는 조항에서 일원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부각	
원기 20년 1935. 4.	「예전」 편수	각종 식장에 심불(心佛)이 봉안되었음을 찾 아볼 수 있음. 또한 상장(喪葬) 때 복표에 흑색 일원상을 그려 원쪽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	
원기 20년 1935. 4.	익산 총부에 '대각전' 준공	정면 불단에 심불(心佛) 일원상이 정식으로 봉안되어 비로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확정 시행.	
원기 23년 1938. 11.	각종 규정 발표	'심불 봉안에 대하여'라는 규정 발표. 당시 인쇄하여 봉안한 원상은 '심불'이라고 쓴 아래에 '○'을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 종으로 '여래지불성(如來之佛性) 사은지본원(四恩之本源)'이라고 씀.	
원기 23년 1938. 12.	법문 발표	소태산 대종사가 초안한 '심불 일원상내역 급 서원문' 법문이 발표되며 현재의 교리체계 구성	근거없음
원기 28년 1943. 3.	「불교정전」	일원상에 관한 편편 교리를 완성된 교리로서 체계화	
원기 47년 1952. 9.	「정전」	일원상 진리를 '○'으로 상징하고 법신불 일원상이라 호칭하였으며, 원불교의 최고 종지로서 이를 신앙과 수행의 대상과 표본으로	

		하여 사은 사요와 삼학 팔조의 교리체계를 이룸.	<input type="radio"/>
--	--	-------------------------------	-----------------------

<표 2> 원불교의 기관 상징 사용 사례

symbol	명칭	설명
	원광대학교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향로의 봉황상을 참고하여 천하를 내려보는 기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세 꼬리는 교육목표인 학습탐구, 덕성함양, 사회봉사를 의미한다.
	영산선학대학교	만수(萬修) · 만연(萬研) · 만덕(萬德)을 교훈으로 원불교 교육이념에 바탕하여 전무출신(專務出身)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새 시대를 선도할 전무출신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미주선학대학원 대학교	해외교역자를 양성하여 해외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신력을 함양함으로써 물질문명과 과학 기술 발전에 조화와 균형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원불교대학원 대학교	정법(正法)정신, 정진적공(精進積功), 제생의세(濟生醫世)의 교훈으로 온누리에 은혜의 서기가 충만하게 하는 전법(傳法)사도(師徒)를 길러내는 교육요람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한울안신문	원불교 서울교구 자체 주간신문으로 따뜻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주황색의 원상으로 표현한다.
	원불교신문	원불교 주간신문으로 교화 · 교육 · 자선의 소식을 사실적으로 기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불교 TV	원불교 인터넷 TV로 온 우주에 진리의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타원을 제시하고 있다.

	원음 방송	원불교 교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밝고 말고 훈훈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	--

III. 종교와 원 상징

종교의 상징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 본능인 공포, 구원, 초월에 대한 의지 등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상징체계는 미숙하고 근시적인 상태에서 해방되려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은 성장과정에서 인간을 제약하는 모든 존재양식으로부터 해방 혹은 초월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유 체계에서 얻어진 가장 상징적 의식인 종교에서 보이는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령스러움, 거룩함이 일깨우는 충족감, 만족감, 풍요 등을 상징한다.

원의 기하학에서 그 초월적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은 우리가 인식하든 않든 간에 항상 우리 주위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완전성과 신성한 상태를 나타내는 우주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종교 미술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신성한 상태를 '하늘', '천국', '영원', '깨달음'의 상징으로 원을 사용해왔다.¹⁾

또한 원은 한국인의 종교 심성적 도형이라는 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용의 고사나 용왕 먹이기를 해돋이 때 함으로써, 해의 원형을 통해 새벽기운과 해 기운의 역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역사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형성해 온 상징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불교에서는 만자(卍) 등 각 종단에서는 각 종단의 교리와 의미에 맞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징기호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부여 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상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상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표현한다. 수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하나님의 사랑)를 나타내고 수평은 이웃과 나의 관계(이웃 사랑)를 나타낸다.

따라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힘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 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면하셨다는 의미와 그에 대한 의미를 수행하게 된다.

불교의 만덕상을 표시하는 부호로 만(卍)자 표시를 휘장과 같이 사용한다. 만은 절을 나타내는 기호이면서 한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슴과 손발, 머리에 길상·행운·경복의 상징인 만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만자는 또 바람개비를 상징한다. 진리의 바람개비인 것이다. 진리의 세상, 진리의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바람개비를 잘 돌리려면 열심히 뛰어야하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라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기독교에서 상징은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숨겨진 채로 있는 성스러운 것(절대적 실재)을 암시함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기독교의 상징들의 의미는 해석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십자가나 양, 물고기 같은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상징물들이 성서를 근거로 하여 사용되어져 왔다.²⁾

그 중 얹혀 있는 세 개의 원으로 상징되는 삼위일체의 원은 성부,

1) *Ibid.* p. 5.

2) 권홍경(2005) 기독교 문화상품의 디자인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p. 33.

성자, 성령의 영원한 속성을 묘사한다. 원이 얹혀 있는 것은 세 위격이 하나의 일체임을 상징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기하학 모양인 원은 시작과 끝이 없기에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으며, 보통 신에 대해 표현할 때 원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 기독교 미술에서는 원이 둥근 꽃무늬 창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우주 속에 뿌리내린 인간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의 뒤에 원형의 후광도 표현하였는데, 이는 완전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³⁾

르네상스 건축⁴⁾에서는 원(圓)을 완전함 즉, 신성한 형태로 간주하여 신의 단일성, 무한한 영적 존재성, 일률성 그리고 신의 정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교회의 중심에서 상부로 높이 솟은 돔의 상 · 하부에 설치된 작은 창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상징되었다.⁵⁾

기독교에서의 원은 낙원, 천지 창조를 상징한다. 또한 구형의 천정에 세 겹의 동심원으로 삼위일체의 상징성을 표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개의 동심원은 지성과 의지를 나타낸다. 사랑과 지식을 의미하는 쌍둥이 원은 예수를 나타내며, 신의 아들이면서 인간이기도 한 예수의 이중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태양과 달 등 두 개의 원이 동시에 표현되면 신성과 인간성의 이중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⁶⁾

불교에서는 원을 삶과 죽음의 시간과 공간을 무한 반복하는 윤회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원은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동력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며, 가장 단순한 시각 형태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적인 의미를 갖는 영원성을 나타내는 인간세계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과 불성, 즉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특히, '월인석보'나 '월인천강지곡'등이 표상하는 불성은 달과 어우러져 한층 원의 의미를 심화 시킨다.

불법이나 불성이 광태로 표상되면, 달빛이 되고, 모양으로 표상되면 만월의 원이 된다. 이렇게 양자가 어울리면서 원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게 된다. 불교의 윤회설(輪回說)에서는 원형의 시간관에 대한 해석으로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하나의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 다니는 영혼의 수레바퀴처럼 다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원의 형태상의 순환성을 의미화 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선종에서는 원이 깨달음을 나타낸다.⁷⁾ 심우도(心牛圖)는 수행자가 방황하다 본성을 깨달아가는 수행과정을 야생 소를 길들이는데 비유하여 10단계로 나누어서 그린 그림이다.

심우도의 10단계 중 여덟 번째 인우구망(人牛俱忘)은 텅 빈 원을 그린 그림이다. 객관적 존재인 소와 수행 방편인 채찍도 잊은 다음 자신마저 잊어버려야 함을 비유했다. 진정한 깨달음과 초월의 경지에 이르면 모두 공(空)하다는 뜻이다.



<그림 1> 세 개의 원



<그림 2> 그리스도

3) 한국문화상징사전(1995) p. 494.

4) Renaissance Architecture - 봉건제도와 기독교 정신 위주의 중세 봉괴되고 상공업 위주의 시민사회가 성립된 15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어 15, 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의적 경향의 건축양식.

5) 한덕진(2002) 원의 형태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p. 14.

6) 장경선(2009)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한 섬유작품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원. p. 8.

7) 윌란디야코비(1995) 칼융의 심리학. p. 157.



<그림 3> 심우도 중 인우구망(人牛俱忘)

일원상은 둑글기가 허공과 같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주객의 차별적 대립이 나뉘기 이전의 근원적 불성의 지혜 작용이며, 무한의 시간과 공간을 중복시킨 법계(法界)를 상징한다. 불성(佛性)은 법계와 하나된 것[萬法一如]이며, 일체 모든 법이 본래 공하다는 뜻으로 그림으로 제시한 법문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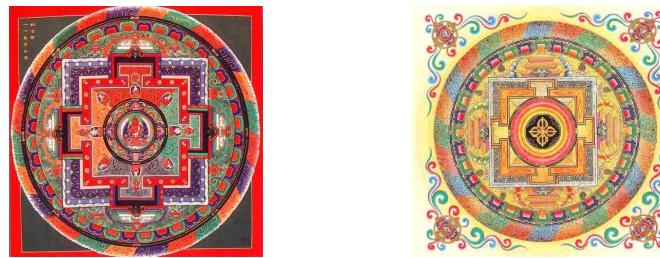
원은 예로부터 ‘태양’을 가리키는 전통적 상징이었다. 원을 상징한 것 가운데 잘 알려진 것에 만다라와 태극도가 있다.

질서 있고 체계적인 우주의 신비를 응축한 개념인 만다라는 명상의식을 돋는 그림으로, 사각형에서 원으로 옮겨가는 형상화된 진행과정은 공간의 결정 작용 또는 열반을 의미하거나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거나 물질에서 정신으로 옮겨감을 의미했다.

대부분의 만다라는 연꽃모양의 원형으로 구조되고 있어 ‘사바세계의 오감이나 망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득도에 의해 성취되는 모든 인간과 사물 본질을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전개되는 우주’의 개념을 담고 있는 동시에 우주와 신의 권능에 대한 교보 및 완전한 영혼, 즉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통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만다라의 순회운동은 인간성의 모든 밝고 어두운 힘과 그 종류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힘과 상반되는 심리적 양극을 활성화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만다라는 존재 세계의 원형에 해당하며, 명상이나 환시(宦侍)를 통해서 형성되는 체계이고, 세계상을 나타내며 성스러운 공간을 둘러쳐서 보호하고 성스러운 중심의 관통, 전체성, 우주적 지성, 통합을 상징한다. 만다라란 범어도 형용사로 사용될 때에는 원이란 의미를 지닌다.⁹⁾



<그림 4> 만다라

한편 태극도는 상반된 두 요소가 대립과 융합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내적본질, 즉 진리의 속성을 표현해왔다. 태극은 서로 상반되는 두 요소가 대립과 융합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내적본질, 진리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역학에서의 원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순환운동을 상징하며 이것은 정신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동양의 만다라와 태극도 안의 원은 ‘전체(全體)’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종합 상징(unifying

8) 김용덕(2005) 우리 불교 우리 문화. p. 127.

9) 홍윤식(1992) 만다라. p. 31.

symbol)'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호 대립하는 것의 '종합'과 '합일'의 개념으로서 원은 상호·상반·대립함으로 하나의 새로운 힘, 즉 '전체'를 획득하고 있다.

심리학자 야코비(Jacobi, Friedrich Heinrich)는 상반성의 종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상반된 양극의 결합(coincidentia oppositorum), 즉 양극을 제 3의 조건으로서 변형시키는 보다 차원 높은 합성에 대한 원형적 심상은 소위 종합상징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상징'은 주로 원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종교적 명상에 따른 정신적 깨달음 즉, '견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만다라를 찾아볼 수 있으며 원은 인간 완성을 상징한다.

이 외에도 도교의 ○은 '공(空)'과 무를 나타내며, 이슬람교(그림 6)에서 ○은 신의 본질이다.

또한 ○은 '우주란(宇宙卵)', 원초적 남녀추니를 나타내고, '충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5> 이슬람교 예배당 모스크



도교의 팔우도(八牛圖)에서는 무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무와 공은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를 담기 위해 원의 상징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심에 점이 있는 원, 태극은 지고의 영적 존재 즉 도(道)이다¹⁰⁾ 하늘의 위대한 힘을 의미하며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 원은 또한 귀중한 진주라 일컫는데 도교에서 진주는 바다가 가진 음의 힘이며, 잠재력을 가진 모든 바다를 지배하는 달의 힘을 상징한다. 이는 실재를 찾는 사람의 탐구여행, 영적개화 등을 상징한다.

힌두교의 특징적인 사상은 윤회(輪迴)와 업(業), 해탈(解脫)의 길, 도덕적 행위의 중시, 경건한 신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통의 힌두교도는 무수히 많은 신(神) 가운데 자기의 신을 골라 숭배(崇拜)하므로 자신이 죽은 후에는 숭배했던 곳으로 가서 신앙의 보답을 받는 것으로 믿으며, 천국에서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그 존재가 끝나면 영혼은 이 세상에 되돌아 와서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믿었다. 탄생, 죽음, 보답, 환생의 과정은 영원히 되풀이 되고 따라서 영혼은 언제나 해탈(解脫)할 수 없는 윤회(輪回)에 얹매여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에 의한 순환과 환생 등의 '영원성'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¹¹⁾

힌두교의 신화도 우주의 원리를 통해 생성되었다. 또한 삼위일체설을 믿고 있고 이 삼위일체는 각각 창조, 유지, 파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 가지 기능은 사실상 통합된 하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인도 신화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서로 다른 신의 모습들이 존재한다.

그 중, 창조와 파괴의 신인 시바신(그림 7)은 순환의 고리를 온전히 나타내는 신으로 '영원성' 표현하고 있다.



<그림 6> 힌두교의 시바

종교 속에 표현된 원의 상징을 살펴보면 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원은 성스러운 존재 혹은 천계(天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종교나 개인마다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에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진리의 세계를 묘사하는 상징 형태는 모두 원형을 취하고 있음을 알

10) 진쿠퍼(1994)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사전. p. 70.

11) 한덕진(2002) 원의 형태를 이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p. 11.

수 있다. 이것은 원이 인간생활의 무의식 세계를 포함하여 세련된 사고 또는 복잡한 사고까지 그 내면에 계속 바뀌는 기본적 힘의 배치에 대한 가장 명백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원은 마음의 전체를 모든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관계를 포함해 우리의 삶에 대한 전체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대립적, 이질적인 것을 통합하여 균형과 조화라는 제3의 힘, 즉 '합일성'의 개념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Community Identity의 이론적 접근

1. Community의 개념과 종교의 Community identity의 형성

빠른 속도의 도시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병리현상을 양산하고 있으며 사람들 간의 갈등과 공동체의 해체 등 다양한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 즉 빠른 도시화는 사회의 아노미¹²⁾, 불안감,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치열한 경쟁과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¹³⁾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협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가장 핵심적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¹⁴⁾

커뮤니티(Community)에 대한 정의와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사회학 용어의 하나로 우리말로는 공동체·지역사회 등을 나타내는 말이며, ① 함께(together)라는 cum과 의무(obligation)라는 munus의 합성. ② 함께(together)라는 cum과 하나(one)라는 unus의 합성의 뜻을 가지는 'commun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¹⁵⁾한다.

또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사회조직체로서 공간적·지역적 단위를 가리키며, 둘째 이러한 단위와 관련되는 심리학적인 결합성 또는 소속감을 지칭한다. 전자의 경우, 사회집단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지만 훨씬 규모가 작고 그들의 공통적 관심이 비교적 밀착되어 있는 하위집단을 말한다.¹⁶⁾ 이 커뮤니티의 개념에는 영토적인 영역, 상당한 정도의 개인 간의 친숙함과 접촉, 그리고 이것을 인근집단과 구별시켜 주는 특별한 종합의 기반 등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또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의들 사이에 공통된 개념 또는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살펴보면,

- ① 지역성: 커뮤니티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직체와 구분이 된다.
- ② 상호작용: 커뮤니티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즉, 커뮤니티를 상호작용에 의거하여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체계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 ③ 공동의 유대: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을 동일시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기본적 단위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공동의 유대와 연대를 공유한다.¹⁷⁾

커뮤니티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커뮤니티 특성 또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세 가지 커뮤니티 특성이 있다.

세 가지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sustained social interactions), 공유된 특성과 가치(shared attributes and values), 지역성(a delineated geographical space)의 커뮤니티의 세 가지 요소가 있

12) 아노미: 사회적 규범의 동요·이완·붕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혼돈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를 말한다.

13) 강대기(1982)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균린관계현상에 관한 연구. p. 38.

14) 윤종국(2001) 스포츠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도시 커뮤니티 형성의 관계. pp. 201-209.

15) 강명수(2006) 디지털 시대 커뮤니티 활용 전략. p. 40.

16)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107>

17) 강명수(2006) 디지털 시대 커뮤니티 활용 전략. p. 41.

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스필드(gusfield)가 지적한 '동료 의식(consciousness of kind)'이다. 동료의식은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내재적인 연결이고, 커뮤니티에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적인 느낌이다. 동료 의식은 공유된 태도(shared attitudes)나 인지된 유사성 (perceived similarity)보다 더 나은 차원의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유된 의식(shared consciousness)이다. 이를 소속감(knowing of belonging)이라고 한다.

둘째, '공유된 의례와 전통(shared rituals and traditions)'의 존재이다. 의례와 전통은 커뮤니티의 역사, 문화, 의식을 영속시키고, 다른 커뮤니티와 차별성을 나타내게 한다.

셋째, 커뮤니티 또는 개별 구성원에게 느끼는 의무 또는 책임인 '도덕적 의무감(sense of moral responsibility)'이다. 도덕적 의무감은 커뮤니티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유치하게 하고, 커뮤니티가 위험한 시기에 협동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커뮤니티와 맞서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종교의 커뮤니티는 과거에는 지역성이나 공간의 제한을 두고 형성되었다면 현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실제 신도로써 증명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상과 신념의 일치만으로도 형성이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일체감과 동질감이 형성되고, 자신이 속해있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강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브랜드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배타성과 이질감을 느끼면서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종교에서도 갖고 있다.

신앙인의 감성적인 측면을 커뮤니티의 감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들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며, 둘째, 심성적으로 통일감을 느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느낌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맞는 하위 커뮤니티에 소속하고 싶다는 자발성이 생성되고,

넷째, 구성원들 사이에 본의에 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전체성을 갖는다.

종교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 공유하는 공통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의식이 구성원 간에 일체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 원불교와 Community identity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원불교가 종교의 문을 열어 교화 및 사회 활동을 수행한지 95년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있어 100년이란 시점은 내부적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적절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또한 최고 종교지도자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필요하게 된다.

1대 교조의 강한 리더쉽과 깨달음의 모습이 2대, 3대를 거쳐 희석이 되고, 새로운 구성원들의 유입으로 종교로서 갖는 외적인 활동(선교, 교화 등)과 내적인 활동(신앙, 수행)에 변화를 갖게 된다.

또한,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 경제의 변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종교를 변화하여 거듭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기에 원불교에서 community identity를 구축하자는 것은 원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교조의 깨달음의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여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종교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CI가 구축되면 그 이전 경계가 모호한 데 따른 개방성, 공공성으로 약했던 지역성과 공동체성이 강하게 변화하고, 구성원간 일체성과 동질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CI를 통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시각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마케팅을 펼쳐 이익을 추구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종교의 입장은 다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확장하여 여러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통하여 종교 문화로 활성화 시키며, 종교인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개인의 정체성과 명성을 커뮤니티로써 구축하게 하며, 보살핌과 명확한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¹⁸⁾으로 교조의 개교의 이념을 전달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community identity 구축이 필요하다.

시각적 기호화를 통한 CI(community identity)의 기대 효과는

첫째, 지명도 및 이미지 향상 효과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주의→지각→인지→학습→동기” 단계를 거치는 동안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불교 교도들만이 서로 알고 서로 교류하던 이미지가 정립되어 인쇄출판, 홍보 등을 일관성 있게 구축함에 따라 교조의 개교의 동기가 살아나고 비종교인과 타종교인들에게 이미지화에 확실한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종교의 홍보효과로 원불교의 CI에 의해 원불교의 시각적 요소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일관된 이미지는 낯설음을 쉽게 해소하게 하고 단시간에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갖게 되며 조직체계에 영향을 갖게 한다.

셋째, 인재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

원불교의 지명도와 인지도 향상에 따라 성직자를 비롯하여 종교 선택 시 선택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은 우수 인재들이 우선 선택 및 지망을 하게 되므로 인재 확보에 효과가 있다.

넷째, 전 교도 및 성직자간에 자부심, 단결심, 귀속감 등 일체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원불교 이미지 상승에 따라 대외적 활동 및 관계유지에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다섯째, 디자인 수준의 향상 효과가 있다. CI작업에서 추출된 디자인 요소의 기본 형태에 시간, 공간적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하거나 발전적 변형만 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디자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원불교 CI(community identity)의 효과는 내적으로 조직의 정비와 일체감, 자부심, 단결심 등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 외적으로는 사람과 문화를 소통하는 단위역할로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선택의 우선권을 갖게 되며,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V. 원불교 Identity System

1. Basic Design System

1.1 심볼 마크(Symbol Mark)

첫째, 본 연구의 원 상징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일성에 의미를 둔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道)’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 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¹⁹⁾가 그것이다.

이는 소태산 대종사가 깨달은 진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서 이를 통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신병희, 이종호 공저(2006) 인사이드 커뮤니티. pp .66~76.

19) 원불교교서(2005). p. 95.

소태산 대종사가 이 두 가지 이치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 주고 천만 가지 선(善)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언급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에 변함없는 상도(常道)”²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까닭에 일원상 상징에는 돌고 도는 것으로 표현되는 ‘생멸 없는 도’와 주고 받는 것으로 표현되는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함께 담겨 있다. 일원상은 돌고 도는 모습과 주고 받는 모습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도형이기도 하다.

이 원상의 궁극적 의미는 원불교 개교의 동기에 밝힌 바와 같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樂園)으로 인도하려 함에 있으며, 소태산 대종사는 이 일을 위해 법신불 일원상을 종지로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펴냈고, 일원상 상징 자체가 소태산 대종사가 지향했던 ‘광대무량한 낙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원 상징의 두께를 정하는 기준은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대상인 일원상을 사운(四恩)으로 표현하는데 두었다.

2대 교조인 정산 종사는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중략)… 죄복 인과를 실지 주재하는 사운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쳐요 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 하나니, 그 첫째는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음이요, 둘째는 사운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 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음이요…”²¹⁾라고 밝혔다.

즉 일원상은 사운이라는 네 가지 큰 은혜를 통해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곳곳이 부처, 일마다 불공이라는 신앙으로 사운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체 만물의 관계를 은혜로 승화시켜 막혀있던 것을 뚫고, 상극의 관계를 상생으로 이끌어내는 소통의 역할이 일원상 상징에 내포되어 있다.

셋째, 원 상징의 색채는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없는 광물인 ‘금’ 고유의 색²²⁾으로 한다. 이는 원시종교부터 시작하여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신을 찬란한 색채와 결부시켜 숭배해 왔고, 이집트 태양의 신,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테나 신을 노랑이나 황금으로 표현하였고, 인도의 부처님의 색을 노랑이나 황금색에 둔 것²³⁾에 연유하여 순환과 불멸을 상징하는 원상의 색을 금색으로 정하였다.

금은 특별한 것이며, 유일무이한 것이다. 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에 속하며, 과도한 빛을 내고, 호화로움으로 압도하고 제압한다.

또한 금빛 노랑의 따뜻한 색에 가장 가까운 색이며, 애정의 색, 성숙의 색, 충만함의 색이다. 금은

20) *Ibid.* p. 507.

21) *Ibid.* p.450

22) 21세기 연구회(2004) 하룻밤에 읽는 색의 문화사. p. 235.

23) 김진한(2002). 색채의 원리. p. 161.

그 자체에 항상 태양과 같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빛의 상징과 깨우침의 상징이며 삶에서 모성적 따뜻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을 원 상징의 색채로 정하여 제작하였다.

1.2 로고 타입(Logotype)

로고로 사용되는 교명 '원불교'는 원기 32년(1947년) 1월 16일 '재단법인 원불교'의 등록 인가가 나옴으로써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단에서는 그 해 4월 총회에 공식으로 교명의 결정을 보고하였고, 이듬해인 33년(1948.戊子) 4월 26일 총대회(總代會)에서 '원불교 교현'의 정식 통과를 보는 동시에, 27일 총부 대각전에서 교명 선포식을 가졌다.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천하에 공시하였다.

2대 종법사인 정산 종법사는 「원(圓)은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재인 자라, 모든 교법이 원(圓)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이며, 불(佛)은 곧 깨닫는다는 말이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圓)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 이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圓) 불(佛)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교명의 뜻을 설명²⁴⁾하고 있다.

로고타입 개발시 주의점은 '원'은 '丸'의 위치에 따라 글꼴이 달라 보이고 가독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며, '불'은 획이 많아 글씨가 작아지는 경우와 전기·전자적 매체의 경우 'ㅂ'과 'ㄹ'이 뭉쳐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며, '원', '불', '교'의 각 글자의 무게감이 다르고 같이 사용함에 있어 가독성과 판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유의하여야 했다.



<그림 8> 원 · 불

글꼴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을 때는 심볼의 고딕적인 단순함을 보완하며 한국적 정서를 담은 캘리그라피 형태를 찾아보았으며, 원불교 내적으로 필력과 인지도가 높은 이산 박정훈 종사님의 자필과 외적으로 여태명 교수의 글씨를 받아 작업을 해 보았으나 심벌과 함께하는 국문 상하조합형이나 좌우조합형 또는 영문과 함께하는 조합형에 적용하였을 때 거칠고 둔탁한 느낌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이 후 기존의 폰트 중에 적합한 폰트를 다수 선택하여 2차례 설문을 통하여 '산돌용비어천가 · 산돌방각본B · 유려 · 백묵 송죽체' 폰트로 압축하게 되었다.

이 후 선택된 폰트를 다시 설문하여 '백묵 송죽체'로 최종 선택되었고, 수정을 하여 로고타입을 정리하였다.

<표 4> 한글로고 설문 폰트 및 캘리그라피

	폰트명 또는 필자	이미지
폰트	산돌용비어천가	

24) 원불교전서. pp. 1107~1108.

	산돌방각본B	원불교
	유력M	원불교
	송죽백묵체	원불교
자 필	이산 박정훈	원불교
	여태명	원불교 원불교

VII. 결론 및 향후 과제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을 시각화시키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 시안을 마련해 보았다.

종교에서 단일 CI를 구축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CI와 사뭇 다르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홍보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데 반해 종교가 다양한 상징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목적을 하나로 정립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번 원불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연구는 원불교의 교조정신과 신앙의 대상을 법제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 진행과정을 통해 ‘원 상징’에 관해 원불교적 관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일 정립해온 사상적 기반에 대해 간략하나마 자료를 찾고 정리해 보았다.

‘원’의 여러 의미와 학설들을 정리하면서 원 상징이 원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밀접하게 상관이 있고 가장 적절한 이미지임을 정리해보았다.

원불교 100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신앙의 대상을 CI라는 형식을 빌려 전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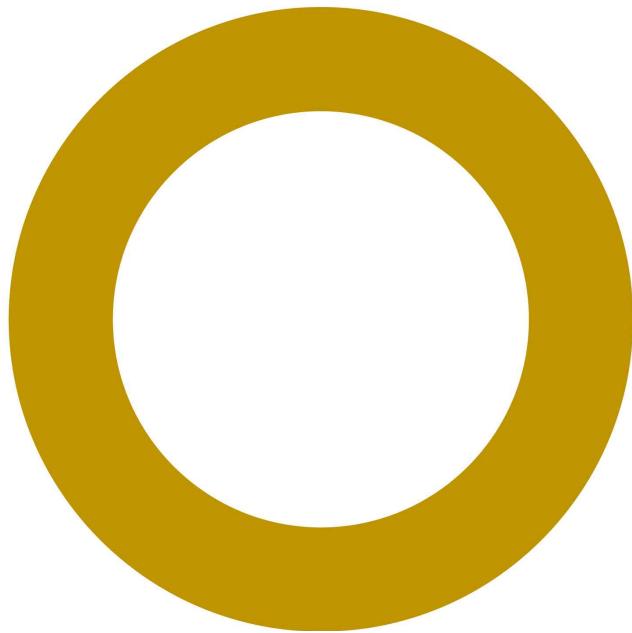
종교의 고유 성격을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원불교를 열었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는 그 뜻을 이미지로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작업이 실마리가 되어 이후 더 많은 관심과 전문가의 노력이 뒤따라 신앙의 대상이 어렵고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신뢰와 믿음을 전하는 이미지로 전개되어 원불교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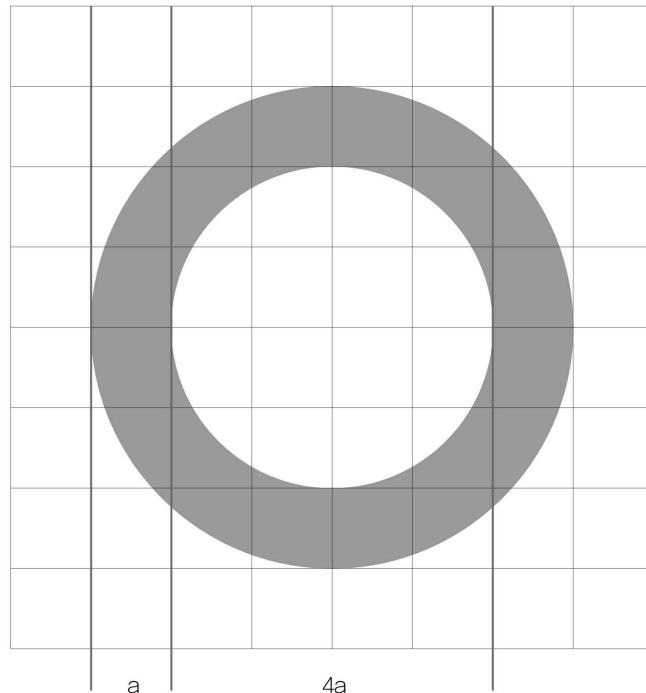
첨부1. Basic Community System

1. 심볼마크(Symbol Mark)

심볼마크 최소사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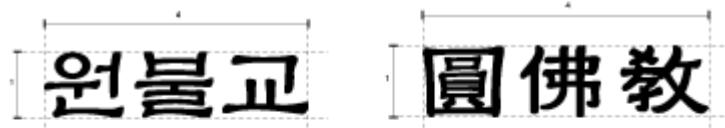


2. 심볼마크 - 그리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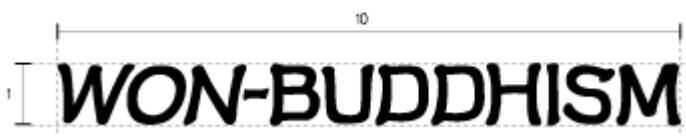


3. 로고타입

가로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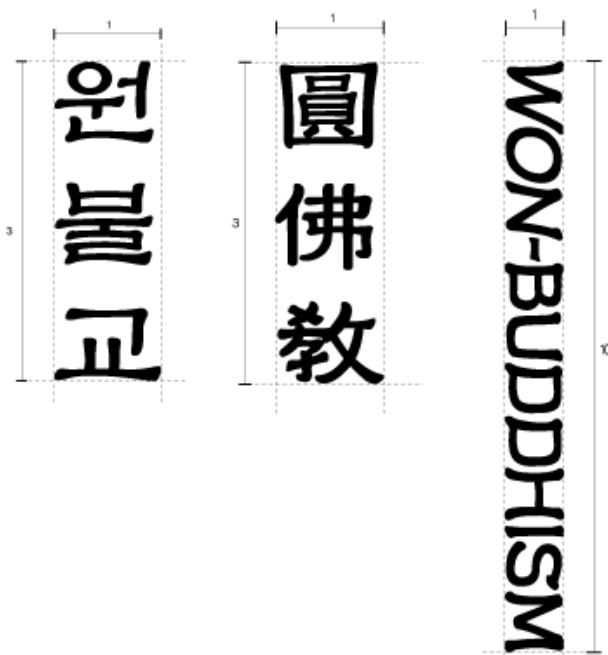
원불교 圓佛教



WON-BUDDHISM

∠10°

세로타입



원불교 圓佛教 WON-BUDDHISM

가로조합



원불교 圓佛教



WON-BUDDHISM

상하조합



국문 세로형 상하조합

Grid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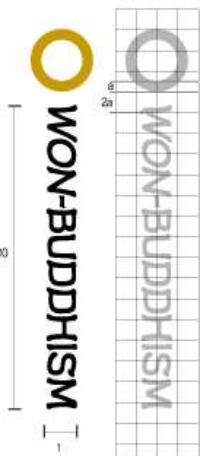
한문 세로형 상하조합

Grid System



영문 세로형 상하조합

Grid System



혼합형



명함

Size : 50x90mm



소봉투

일반 발송용



상장 /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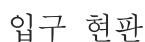


정식기



가로등 배너





간판

A type



B type



각종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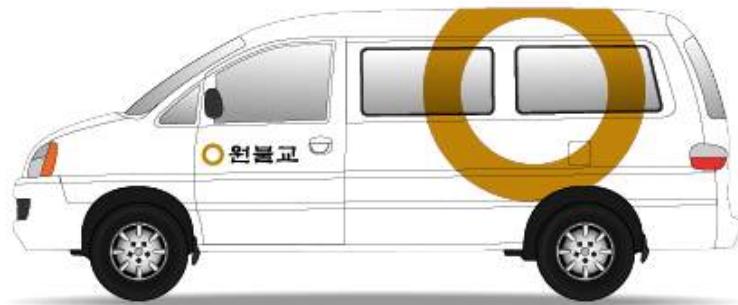
Gold_type



Silver_type



승합차



버스류

